


아산재단은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단 산하의 아산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 아이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은 김수현 학생의 엄마입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 아이들끼리 있는 시간이 많아 늘 걱정 반, 기특함 반의 마음이었습니 다. 첫째인 수현이는 엄마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었고,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해 모두 집에 있어야 할 때도 동생들의 밥을 챙겨주고 스스로 공부하 는 든든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입니다.

아이가 화상을 입은 것도 혼자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스레인을 켜다 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요리를 하던 중 옷에 불이 붙어 양쪽 팔과 엉덩이, 등 까지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이가 다친 것을 안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고, 맞벌이를 하는 것조차 후회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사전에 알고 있던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상 부위가 깊고 넓어서 피 부이식 수술과 장기 입원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수술까지 잘 마쳤지만 치료비와 수술비가 많이 나와 걱정하고 있을 때 병 원 사회사업실에서 우리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사방으로 알아봐주셨습니다. 그때 아산재단에서 지원해 주신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산재단의 도움 덕분에 치료비와 수술비 걱정 없이 아이의 회복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산재단의 도움을 잊지 않고 수현이가 자신과 같은 일을 겪은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산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 잊지 않겠습니다.  김수현 엄마 드림




아산재단은 'SOS 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 제 게 힘을 주 셔 서 감 사 합 니 다

저는 고등학생과 중학생 세 자매의 엄마입니다. 미국에서 아이들 아빠와 헤어진 후 가족이 있는 한국으로 와서 홀로 세 자매를 키웠습니다. 벌써 십년이 되는 세월이 지났네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혼자 애 셋을 키우는 것을 걱정해주신 지인들이 '복지가 잘 되어 있으니 도움을 받아보라'고 권해주셨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미국 국적이어서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서류 준비와 소명 절차가 무척 복잡하고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아이들이 자랄수록 교육비 부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가 겹치고, 부득이하게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면서 한계가 왔습니다. 생계비로 막막한 상황에 움츠러들어 있을 때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다방면으로 알아봐주신 덕분에 3개월간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용기를 내어 편지를 씁니다. 제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배풀어주신 은혜 잊지 않고 앞으로 힘든 순간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받은 도움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아산재단에 감사드립니다.  김선희 드림

